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실질 구매력 감소로 내수 회복의 어려움 가중
- 美 금리 인상 우려, 글로벌 증시 급락

경영 노트

- 글로벌 기업 CEO들의 혁신 전략

사회 트렌드

- 스포슈머(Sporsumer)
- 소비자 노예(Consumer Serfs)

저널 브리프

- 조선개발투자펀드의 발족과 전망

洗心錄

-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

□ 실질 구매력 감소로 내수 회복의 어려움 가중

- 1/4분기 실질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는 전기대비 1.2% 증가하였으나, 국민들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는 오히려 전기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GNI는 GDP에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르는 무역 손익, 국가간 투자에 대한 배당금 및 이자 수지를 반영하여 계산되는 것으로서, 통상 국내 경제 주체들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됨
 - 1/4분기 실질 GNI가 큰 폭으로 하락한 주된 원인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수입 제품 단가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실질 무역 손실액이 16조 8,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기 때문임

- 실질 GNI의 감소는 가계와 기업의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향후 구매력 부족으로 이어져 소비와 투자의 내수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美 금리 인상 우려, 글로벌 증시 급락

- 2006년 6월 5일 미국 연준 의장인 버냉키가 인플레이 압력 심화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해 글로벌 주식 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함
 - 6월 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통화정책 포럼에서 美 연준 의장인 버냉키가 인플레이션이 적절히 제어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정책 금리가 인상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함
 - 이에 따라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국 주식시장(다우존스 지수)이 전일 대비 1.77% 하락한 것을 비롯해 독일(DAX40) -1.16%, 일본(NIKKEI225) -1.81% 등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를 나타냄

- 지난 2004년 6월 이후 지속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조만간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르는 세계 증시 조정 장세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 글로벌 기업 CEO들의 혁신 전략*

- (개요) IBM은 글로벌 기업의 CEO들과 정부의 주요 공직자를 대상으로 혁신 관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 (관점 1) 자동차, 주택, 가전 등 많은 제품들이 인터넷과 반도체로 연결되면서 여기에서 새로운 글로벌 사업 기회를 모색함
 - 특히,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저렴한 운송비, RFID, 슈퍼 컴퓨팅과 같은 요인들이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음
- (관점 2) CEO들은 제품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
 - 제품 혁신은 단시간에 경쟁사에 의해 모방될 가능성이 높지만,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고객이 받는 가치와 산업 내 기업 위치를 독보적으로 만듦
- (관점 3)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력과 CEO의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
 - 글로벌화가 가속화될수록 기업들은 多국민·多민족, 그리고 각국의 정부·기업·기관들과의 사업도 많아져 협력이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대두
 -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프로세스를 비롯하여 조직 문화까지 변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CEO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국내 기업들은 신기술에 기반한 제품 혁신에 치중하는 혁신 전략에서 벗어나야 함
 - 수익 창출 방식을 바꾸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조직내 저항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으나, 이의 성공은 업계 구도를 바꿀 정도로 위력적임(예: 델사의 주문생산 및 판매모델)

* 이 글은 *Business Week*(2006.4)에 게재된 “*Innovation: The View From The Top*”을 요약, 재구성한 것임

□ 스포슈머(Sporsumer)

- 월드컵 등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가 몰려있는 올해 국내 소비문화의 키워드는 스포슈머(Sporsumer)가 될 것이라는 전망임
 - 스포슈머란 ‘스포츠’(Sports)와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임
 - 제일기획 연구에 의하면, 프로슈머는 스포츠 관전, 직접 활동, 정보 탐색 등 스포츠 소비 의향과 소비 잠재력이 상존하는 집단으로서, 서울 및 수도권 17~54세 인구의 51.5%나 되는 것으로 추정됨
 - 올해는 이미 토리노 동계올림픽,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이 있었고 6월에는 독일 월드컵, 12월에는 도하 아시안게임 등이 열림
- 스포슈머의 특성을 대변하는 키워드는 ‘적극성’(ACTIVE)이라 함
 - 이들은 ▲타인과의 교류를 중시하면서도(Association) ▲자신만의 개성과 자신감이 강하고(Confidence) ▲새로운 트렌드(Trend)에 민감하며 ▲ 적극적으로 정보(Information)를 수집, 활용하며 ▲ 관심사도 다양하고(Variety) ▲ 무슨 일을 하든 흥미와 즐거움을 추구(Entertainment)
- 그리고 스포슈머에 적용될 수 있는 마케팅 가이드로 ‘PLAY’를 강조
 - ▲즐거움을 제공하고(Pleasant) ▲여성소비자를 공략하며(Lady-oriented) ▲권위 있는 대상을 이용하고(Authoritative) ▲젊음의 이미지를 집중 공략하라(Young)는 것으로 요약됨

□ 소비자 노예(Consumer Serfs)

- 식당을 포함한 소매업자들이 고객에게 일을 시키는 방식을 설명하는 말로서, 페이스 팝콘이 <미래생활사전>에 넣은 신조어
 - 가장 쉬운 예가 셀프 서비스로서, 이전에는 식당 주인이 하던 일을 셀프 서비스란 이름으로 고객이 직접 무보수 노동을 함
 - 고객들은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고객이 차를 탄 채 물건을 주문하고 받을 수 있는 가게)에서 매장 안에서와 같은 가격을 지불하지만 쓰레기는 가져와야 함
 - 전화 음성 메일은 전화 건 사람이 ‘돈을 내게 하는’ 오퍼레이터로 만듦
 - 현금자동지급기를 쓸 때는 무보수 은행원이 되며, 이런 특권(?)을 누리기 위해 수수료를 내야 할 때도 있음

□ 조선개발투자펀드의 발족과 전망*

■ (조선개발투자펀드 발족과 문제점) 북한의 광물과 에너지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북한 전용 국제사모펀드인 조선개발투자펀드가 발족함

-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격리된 북한의 자금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미국의 견제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
- (펀드 설립 배경) 북한은 미국의 반대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조차 없어 국제사회로부터 자금 지원 통로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자금조달을 위해 이 펀드가 설립되었음
 - 미국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반대: 북한은 1997년 아시아개발은행을 필두로 여러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 신청을 하고 있으나 미국의 반대로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이 불가능한 현실임
 - 미국의 특별신탁기금 설립 반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거론되어 온 북한 개발을 위한 특별신탁기금(주요국들이 국제금융기구에 예탁한 자금으로 이들의 허락만 있으면 지원 가능하며, 팔레스타인 등의 경제 재건에 지원됨)도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도입이 불가능한 상태임
- (펀드 개요) 영국 런던에 있는 앵글로 시노 캐피털 파트너스와 홍콩의 고려 아시아의 합작으로 운영되는 조선개발투자펀드는 1차로 5,000만 달러 규모로 출발하여 1억 달러 규모로 확대해갈 방침이며, 내부적으로는 연간 15~20%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전망) 펀드 운용을 통해 북한의 경제재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뿐 아니라 국제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한국정부도 보다 다채로운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문제점) 펀드의 판매 및 운영 과정에서 북핵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견제와 투자여건상의 돌발 상황 발생 등 많은 어려움 또한 있을 것임

* 이 글은 『한경 비즈니스』(2006.06.12)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

트리클 다운 효과란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덩달아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게 된다는 경제 이론이다. 말 그대로는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서, 상층의 부가 충분히 진행되면 아래 계층으로 자연스럽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원래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이 1904년 유행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세운 가설에서 비롯됐다. 하위집단은 상위집단을 모방하고, 상위집단은 고유의 지위 표지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패션을 채용하여 대응한다는 것이다.

트리클 다운은 미국의 제41대 대통령 부시(부시 현 미국대통령의 아버지)가 재임 중이던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채택한 경제정책이었다.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 주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가 향상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 마진폭이 높은 중대형 고급차 부문에 투자를 집중해 재원을 확보한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면 소형차 시장도 연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트리클 다운 효과이다.

앨빈 토플러는 최근의 그의 저서 <Revolutionary Wealth>에서 제3의 물결(지식경제) 사회가 제1의 물결(농업)과 제2의 물결(산업) 사회에 부를 전파하는 과정을 이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처음에는 미국이, 그 뒤를 이어 일본이, 그 뒤를 이어 대만과 한국이 자신들의 저부가가치 업종을 중국을 비롯한 여러 농업국가들로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수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었을 때, 경제적 부의 혜택이 빈곤 국가까지 돌아가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비정상을 정의하자면, 상이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동일한 것을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행위다.”**

- 리타 마에 브라운(1944~) : 미국의 여류 작가